

“제주 공동자원생활체계 제도 설계를 위한 서설”에 대한 토론문

김 태 연

(제주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)

발표해주신 내용에는 최근 들어 제주사회가 떠안게 된 여러 고민들과 곳곳에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논의 내용을 ‘공동자원사고체계’라는 틀 안에서 더욱 확장시키는데 필요한 단서들이 담겨있습니다. ‘제주 공동자원사고체계 제도 설계’라는 구상이 서설이라고 하기에 규모가 크고 내용이 무척 깊습니다. 이 토론은 발표 안에서 논평 거리를 찾기 보다는 현실에서 구현하기 위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질문들을 드리려고 합니다.

1. 기존의 복지체계(welfare)가 아닌 왜 ‘공동자원생활체계’(commonfare)인가?

발표자께서 최근 출간한 책인 『일을 되찾자』(2019)에서 ‘공동자원체계(commmons)로서의 일’이라는 개념이 자세히 소개되어있는데요. 동료 시민이 공동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타자와 교류할 수 있는 공동의 자원으로 전환하고 동료 시민과 함께 일을 조직하는 체계라는 정의가 인상적이었습니다. 주20시간 노동제, 공동자원시민노동 등 발표문에서도 언급되어있지만, 공동자원으로서의 일이라는 개념과 더불어서 기존의 복지체계가 아닌 왜 ‘공동자원생활체계’인지에 대해서 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.

2. 제주사회 도입을 위한 접근 방안

발표문에는 개인, 시민사회, 행정당국(제주정부), 특별법과 제도 개선 등 공동자원생활체계를 구축해나가기 위한 여러 단위에서의 역할과 예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. 발표자께서 분석하고 계신 각 단위 간의 현실적인 제약은 무엇인지,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별 접근 방안은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. 더불어 전환시나리오와 이행을 위한 혁신체계 안에서 ‘협력적 시간’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도 부연해주시면 좋겠습니다.

3. 기획에서 정책으로

발표자께서는 이 연구가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하셨지만, 서설 이상의 ‘공동자원생활체계’라는 기획의 골격을 구성해냈다고 생각합니다. 이를 구성하는 많은 요소들 가운데서 제주에서 공동자원생활체계라는 제도가 정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제주사회가 관심을 가지면 좋을 요소들을 더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.